

##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3)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

네티즌(누리꾼)들은 비속어나 유행어의 어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10대나 20대 네티즌들의 관심은 다른 세대보다 지대하다. 그도 그럴 것이 비속어나 유행어를 만들어 쓰는 주체가 10대나 20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속어나 유행어의 어원을 알고 쓰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마치 욕의 어원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쓰는 것과 같다. 그 어원을 모르고 쓰면서도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한 것도 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많이 쓰고 있는 비속어 및 유행어 가운데 ‘싸가지’, ‘왕따’, ‘어쭈구리’, ‘짱’을 택하여 그 어원을 밝히기로 한다.

### II

#### 1. 싸가지

‘싸가지’를 일부러 ‘사가지’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가지가 바

가지 같은 놈아.”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가지’를 ‘4가지’로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4’를 ‘인(仁)·의(義)·예(藝)·지(智)’ 네 가지로 간주하고 ‘짜가지가 없다’를 ‘인의예지가 없다’, 즉 ‘예절이 없다’로 해석하려 든다. 정말 기발한 발상이다.

‘4가지’라면 ‘네 가지’라고 읽어야지, ‘사가지’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4가지’가 있다면 ‘3가지’도 있고 ‘5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말은 없지 않은가.

이러한 해석은 아마도 ‘짜가지가 없다’의 ‘짜가지’를 ‘예의’나 ‘버릇’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한다. ‘짜가지’가 ‘예의’나 ‘버릇’의 의미가 아니라면 본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에 대한 답은 ‘짜가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쉽게 해결된다. 사전을 보면 ‘짜가지’를 ‘씩수’의 강원·전남 방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 ‘짜가지’는 ‘씩수’라는 말의 방언에 불과하다. 특정 지역의 방언에 불과한 단어가 지역에 관계없이 많이 쓰이게 되자 이 단어에 부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씩수’는 어린잎이나 줄기를 가리키는 ‘씩’에 ‘수’가 결합된 어형이다. ‘수’는 한자 ‘數’이거나 ‘首’일 가능성이 있다. ‘數’로 보는 것은 ‘數’가 ‘운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首’로 보는 것은 ‘씩수’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 ‘씩수머리, 쯤수대가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씩수’는 ‘앞으로 일이 잘 트일 수 있는 낌새나 징조’라는 비유적 의미를 띤다. ‘짜가지’가 ‘씩수’와 같은 의미이므로 ‘짜가지’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짜가지’는 ‘씩수’와 마찬가지로 ‘씩’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이 ‘씩’에 접미사 ‘-아지’가 결합된 어형이 ‘짜가지’이다. 접미사 ‘-아지’는 ‘강아지, 망아지, 바가지, 송아지’ 등에서 보듯 ‘작은 것’을 지시한다. 아울러 ‘꼬라지, 따라지(보잘것없는 사람), 모가지’ 등에서 보듯 작은 것을 지시하되 비하(卑下)하는 의미를 더 보태기도 한다. ‘짜가지’에 쓰인 ‘-아지’도 그와 같은 성격이다. 그렇다면 ‘짜가지’는 ‘씩수’와 같이 ‘앞으로 일이 잘 트일 수 있는 낌새나 징조’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비하(卑下)’의 의미를 더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씩수’와 감정적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다. 이로써 ‘짜가지’가 본래 ‘예절’이나 ‘머릿’과는 거리가 있고 ‘가능성’ 내지 ‘장래성’과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씩수’는 ‘있다, 없다, 노랗다, 보이다’ 등과 어울려 ‘씩수가 있다’, ‘씩수가 없다’, ‘씩수가 노랗다’, ‘씩수가 보이다’ 등의 한 구성 요소로 쓰인다. 이 가운데 ‘없다’와의 결합력이 대단히 강하여 ‘씩수가 없다’에서 주격 조사 ‘가’가 탈락한 뒤 축약되어 ‘씩수없다’로 굳어진다.

물론, 그 방언인 ‘짜가지’도 ‘있다, 없다’와 잘 어울려 ‘짜가지가 있다’, ‘짜가지가 없다’의 형식으로 많이 쓰인다. 반면에 ‘노랗다’나 ‘보이다’와는 잘 어울리지 못하여 ‘짜가지가 노랗다’나 ‘짜가지가 보이다’는 좀 어색하다.

그런데 ‘짜가지’가 부정어 ‘없다’와 어울려 ‘짜가지가 없다’의 형식으로 많이 쓰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짜가지’에 그야말로 ‘짜가지(씩수)가 없는 것’ 또는 ‘짜가지(씩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새로 생긴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는 ‘짜가지’와 빈번히 어울려 나타나는 ‘없다’의 부정적 의미 가치에 전염(傳染)된 결과 생겨난 것이다. “아, 짜가지네.”, “뭘, 저런 짜가지가 다 있나?”, “짜가지, 그런 재미있는 일을 저 혼자만 즐기다니!” 등에 쓰인 ‘짜가지’가 바로 새로 생겨난 변화된 의미로서의 그것이다.

이렇게 ‘짜가지’에 의미 변화가 일어나면서 “짜가지 없네.”와 “아, 짜가지네.”라는 속된 표현이 거의 같은 의미를 띠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아해했던 것이다. ‘짜가지’가 ‘없다’의 의미 가치에 전염(傳染)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짜가지’에 ‘없다’가 붙는 표현과 ‘짜가지’ 자체가 어찌하여 같은 의미를 지니는가에만 골머리를 썩인 것이다. ‘왕짜가지’라는 단어나 ‘내 사랑 짜가지’라는 표현을 보면 ‘짜가지’의 의미 변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짜가지’와 같은 의미인 ‘씩수’나 ‘씩’은 의미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들도 ‘없다’와 빈번히 어울려 쓰이지만 아직은 ‘없다’의 간섭을 거부하고 있다. ‘씩수’나 ‘씩’은 이들 ‘없다’와 통합된 표현에서도 여전히 ‘장래성’이나 ‘가능성’의 의미를 띤다.

## 2. 왕따

‘왕따’는 이제 새삼스러운 단어가 아니다. 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렇게 갑자기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이른바 ‘집단 따돌림’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일본에서 수입된 못된 관행이다. 일본은 집단의식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는 사회이다. 집단으로 모여 무슨 일을 도모해야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리는 기질이다. 이는 일종의 강박 관념이다. 그래서 해당 집단에 반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집단이 나서서 대놓고 따돌리고 학대한다. 이것이 이른바 ‘이지메(집단 따돌림)’이다.

이 ‘이지메’ 현상이 1990년 후반 이후에 우리의 학교 사회에 확산된다. 이를 우리 학생들은 발빠르게 ‘왕따’라는 은어를 만들어 표현했다. 이 말을 인천에 있는 모 여학교에서 최초로 만들어 썼고,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도중에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뒷북치는 어리병병한 친구의 애칭 정도로 썼다고 하나 확인할 방법은 없다.

분명한 점은 ‘왕따’라는 말은 학생들이 만든 은어라는 것, 지금은 급속도로 퍼져서 은어적 성격에서 벗어나 유행어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 사회에서 일반 사회로까지 퍼져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 이 ‘왕따’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말인가? 이 말은 ‘왕따돌림’이라는 말에서 ‘왕’과 ‘따’만 취한 어형이다. ‘왕따돌림’에서 ‘왕’과 ‘따’만 취하여 한 단어를 만드는 것은 우리말의 조어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조어는 은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왕따돌림’은 ‘왕’과 ‘따돌림’으로 분석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따돌림’에 접두사 ‘왕-’을 덧붙인 어형이다. ‘왕-’은 ‘왕가뭇, 왕거미, 왕고집, 왕고참, 왕대포, 왕밤, 왕방울, 왕재수, 왕초보, 왕회장’ 등에서 보듯 접두사로서의 결합력이 왕성하다. ‘왕따돌림’이라는 단어도 접두사 ‘왕-’의 강력한 조어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이들 여러 예에서 보듯 접

두사 ‘왕-’은 ‘매우 큰’, ‘최고’, ‘아주 심한’ 등의 의미를 보인다.

‘왕따돌림’에 쓰인 ‘왕-’은 ‘왕가뭇, 왕고집’ 등의 ‘왕-’과 같이 ‘아주 심한’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왕따돌림’은 ‘아주 심한 따돌림’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왕따돌림’에서 변형된 ‘왕따’도 본래 그와 같은 의미를 띠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왕따’는 ‘심한 따돌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단 따돌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왕’이 ‘심한’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왕따’에 결부된 ‘집단’이라는 의미는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일본어 ‘이지메’의 의미 간섭으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 현상을 일본어를 빌려 ‘이지메’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본어라서 거부감이 들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왕따’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지메’가 함축하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왕따’에 끼어 들어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의미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왕따’가 ‘집단 따돌림’이라는 의미로 굳어지자 ‘왕따화, 왕따시키다, 왕따당하다’ 등과 같은 단어까지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새말로 인정할 것인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왕따’ 자체도 우리말 조어법을 어긴 비정상적인 단어인데, 이를 토대로 하여 이차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심지어 ‘개따(개인적인 따돌림), 금따(금방 따돌림), 대따(대놓고 따돌림), 은따(은근히 따돌림), 전따(전체에게 따돌림), 집따(집단으로 따돌림)’ 등과 같은 ‘왕따’ 계열어까지 등장하고 있어 ‘왕따’의 폐해는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언어 생활에서도 자못 크다.

‘왕따’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적 의미로서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대상적 의미로도 쓰인다. 오히려 이러한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다. “너도 왕따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에 쓰인 ‘왕따’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왕따’는 우리말 조어법을 어긴 기형적인 단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

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은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통속적인 은어가 일상어 범주로 들어와 쓰이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언어생활은 저속해지기 마련이다. 이 ‘왕따’를 대신하여 고유어 ‘가마리’를 쓰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언어생활의 저속화를 우려한 나머지 ‘왕따’라는 단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보자는 궁여지책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마리’가 ‘왕따’를 대신할 대체어는 될 수 없다. ‘놀림가마리, 땃가마리, 욕가마리’ 등에서 보듯 ‘-가마리’는 일부 명사적인 어근에 붙어 ‘그 명사가 나타내는 성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지시하는 접미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왕따’는 그것이 현상이면 ‘집단 따돌림’으로, 그것이 대상이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 3. 짱

요사이 ‘몸짱’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가진 사람을 특별히 가리키는데, 몸매와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이러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은 잘 빠진 몸매에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아울러 갖춘 ‘몸짱 아줌마’가 등장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 ‘몸짱’은 아주 이상한 단어이다. ‘몸’이라는 신체어(身體語)에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짱’이 결합된 어형이기 때문이다. ‘짱’은 ‘몸짱’뿐만 아니라 ‘가슴짱, 다리짱, 얼짱’ 등과 같은 예에서 보듯 다른 신체어에도 붙고 있어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다. ‘짱’은 신체어에 붙어 이상형의 신체를 소유한 이들을 가리킨다. 물론 요사이에는 ‘공부짱, 마음짱, 운동짱’ 등도 있어 꼭 ‘짱’이 신체어와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짱’이 본래부터 신체어에 결합되어 접미사처럼 쓰인 것은 아니다. 본래는 명사로 쓰인 단어이다. 다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은어로 쓰여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다.

청소년들은 자기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학생을 ‘짱’이라 부른다.

“철수가 우리 학교 짱이야.”라고 하면 ‘철수’가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식으로 표현하면 ‘짱’은 ‘캡’이 된다.

그런데 ‘짱’은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최고’, ‘ 으뜸’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기도 한다. “철수가 인간성은 짱이다.”에 쓰인 ‘짱’이 바로 그것이다. ‘짱’은 더 나아가 부사로 기능을 달리하여 ‘가장, 매우’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영희는 노래를 짱 잘한다.”에 쓰인 ‘짱’이 그와 같은 것이다.

‘짱’은 단독으로 쓰이다가 급기야 신체어와 합성되기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가슴짱, 다리짱, 몸짱, 얼짱’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단어는 ‘얼짱’이다. ‘얼짱’의 ‘얼’은 ‘얼굴’을 가리켜 ‘얼짱’은 ‘얼굴이 가장 잘생긴 사람’을 가리킨다. ‘얼짱’ 이외의 ‘가슴짱, 다리짱, 몸짱’ 등은 ‘얼짱’의 아류라고 보면 된다. 요즘은 ‘얼짱’의 반대말인 ‘얼꽁’까지 만들어져 쓰인다.

그러면 ‘짱’은 어디서 온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어 있다. 일본어 ‘짱’에서 왔다는니, 한자 ‘長(장)’에서 왔다는니, ‘將軍(장군)’에서 왔다는니, ‘짱돌’에서 왔다는니, 만화 이름 ‘짱’에서 왔다는니, ‘짱구머리’에서 왔다는니 하는 등 정말로 많다.

이 가운데 그런대로 널리 퍼져 있는 설은 일본어 ‘짱’에서 왔다는 것과 한자 ‘長’에서 왔다는 것이다. 일본어 ‘짱’은 자신과 동급이거나 손아래의 사람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 뒤에 붙이는 말이다. ‘히로코짱, 히로시짱’의 ‘짱’이 바로 그것이다. 아주 가까운 친구나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어 ‘짱’이 한국으로 들어와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라는 은어로 정착하였다는 설명인데, 어딘지 의심스럽다. 일본어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 과격한 의미의 단어로 변신하였는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일본어에서는 접미사로 쓰이는 단어가 한국에 들어와 명사로 기능을 달리하여 쓰인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자 ‘長’은 어떤 조직체나 부서 따위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장 노릇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에 쓰인 ‘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물론 ‘교장(校長), 사장(社長), 원장(院長)’의 ‘장’도 그와 같은 것이다. 다만 ‘대장(大將)’의 ‘장’과는 다르다.

이 ‘장(長)’이 된소리로 변하여 ‘짱’이 되고, 학교라는 특정 사회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로 굳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어원설이 ‘짱’에 대한 여러 어원설 가운데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발음도 ‘장(長)’과 가깝고 또 의미도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우두머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짱’은 표준어가 아니고 은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은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일상어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저 ‘싸움 대장’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이용하여 ‘몸짱’이니 ‘마음짱’이니 하는 등의 기형적인 새말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말의 질은 이에 비례해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4. 어쭈구리

가게에 붙은 수많은 상호 가운데 ‘어쭈구리’라는 별난 상호가 있다. 주로 호프집에서 확인된다. ‘어쭈구리’ 호프집은 전국 연쇄점이어서 이와 같은 상호의 호프집이 전국에 대단히 많다.

똑같은 상호는 눈에 잘 띄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어쭈구리’와 같이 독특한 말을 이용한 상호는 더더욱 눈에 잘 띈다. 이런 점에서 ‘어쭈구리’ 호프집은 일면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굳이 불량스러운 말인 ‘어쭈구리’인가? 유쾌, 통쾌, 흔쾌하게 술 마실 수 있는 만인의 광장 호프집에 남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때 쓰는 ‘어쭈구리’는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장삿속에서 아무렇게나 선택한 상호



라면 할 말은 없다.

‘어쭈구리’는 불량스러운 말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상호로서 문제가 있다. 큰 사건을 찾아보아도 이 단어는 올라와 있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단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어쭈구리’를 고유어가 아닌 한자 성어(成語)로 설명하기도 한다. 곧 ‘魚走九里(어쭈구리)’에서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 듯한 이야기까지 결부되어 있다.

옛날 중국 한나라 때의 일이다. 어느 연못에 예쁜 잉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메기 한 마리가 이 연못으로 몰래 잠입하였다. 그 메기는 잉어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 덤벼들었다. 잉어는 연못 이곳저곳으로 메기를 피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잉어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였다. 잉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 올라 지느러미를 다리 삼아 냅다 뛰기 시작했다. 메기가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잉어가 뛰어간 거리는 약 구 리(九里) 정도나 되었다. 잉어가 뛰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것을 목격한 농부가 뒤따라갔는데, 잉어가 멈추자 그 농부는 이렇게 외쳤다. “어쭈구리(魚走九里)!”

‘魚走九里(어쭈구리)’는 ‘물고기가 구리(九里)를 달리다’의 뜻이다. 물고기가 먼 거리를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능력도 없는 어떤 사람이 능력 밖의 황당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 한자 성어를 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황당하다. ‘魚走九里’라는 한자 성어는 도대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개그맨(익살꾼)이 꾸며낸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유머 게시판으로나 가야 할 내용이다.

그럼 ‘어쭈구리’는 어디에서 온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어쭈구리, 그렇게 말하니까 성인군자 같군!”, “어쭈구리, 제법인데.”, “어쭈구리, 죽는 줄 모르고 까불고 있군.” 등에서 보듯 ‘어쭈구리’는 남의 잘난 체하는 말이나 행동을 비웃거나 비아냥거릴 때 쓴다.

이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갖는 단어에 ‘아주’가 있다. [아쭈]로 발음하기도 하나 ‘아주’가 표준어이다. 위 문장의 ‘어쭈구리’를 ‘아주’나 ‘아쭈’로 대체 표현해도 문장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쭈구리’와 ‘아주’, ‘아쭈’가 같은 의미라는 점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어쭈구리’의 어원 설명의 절반은 달성된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어쭈구리’의 ‘어쭈’를 ‘아쭈’의 모음 변화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모음 ‘ㅏ’와 ‘ㅑ’의 교체는 빈번하므로 ‘어쭈’가 ‘어쭈’로 변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다만 ‘구리’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사 ‘그리(그렇게)’이다. 이 ‘그리’가 ‘어쭈’의 제2음절 모음 ‘ㅏ’에 이끌려 ‘구리’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어쭈구리’는 ‘아주, 그렇게’라는 의미가 된다. 잘난 체할 만한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불고 날뛰느냐는 뜻을 담고 있다고나 할까.

또 한편으로는 ‘구리’를 단순한 접미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접미사 ‘-구리’가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쭈구리’가 한자 성어가 아니라 우리 고유어라는 점, 그리고 ‘어쭈’는 ‘아쭈’, 즉 ‘아주’에서 온 말이라는 점이다.

### III

지금까지 비속어 및 유행어 가운데 몇 개를 골라 그 유래와 어원을 살펴보고왔다. 그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짜가지’는 본래 ‘짜수’의 방언으로 ‘짜’에 접미사 ‘-아지’가 결합된 어형이다. 부정어 ‘없다’와 빈번히 어울려 쓰임으로 해서 ‘없다’의 의미 가치에 전염되어 ‘짜수가 없는 것’ 또는 ‘짜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된다.

- (2) ‘왕따’는 ‘왕따돌림’에서 ‘왕’과 ‘따’만 취하여 만든 은어이다. 접두사 ‘왕-’이 ‘심한’의 뜻이므로 ‘왕따’는 ‘심한 따돌림’의 뜻이다. 그런데 일본어 ‘이지메(집단 따돌림)’의 의미 간섭을 받음으로써 ‘집단 따돌림’으로 해석되고 있다. ‘왕따’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대상적 의미도 갖고 있다.
- (3) ‘짱’은 한자 ‘長’에서 온 말이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이외에 ‘최고’, ‘가장, 매우’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 (4) ‘어쭈구리’의 ‘어쭈’는 ‘아주’가 ‘어쭈’를 거쳐 나온 어형이고, ‘구리’는 ‘그리(그렇게)’가 변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 참고 문헌

- 조항범(1999), “傳染’에 의한 意味 變化에 대하여”, “人文學志 17집”,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 \_\_\_\_\_ (2004ㄱ),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1)’,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4ㄴ),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2)’, “새국어생활 제14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